

차이나타운 투자환경 타진 (경기일보 2005.05.20)

차이나타운 투자환경 타진

[경기일보 2005-5-20]

중국 산둥성(山東省) 칭다오(靑島) 왕진소우(王鈞秀) 처장을 비롯, 32 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이 19 일 고양시 대화동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뒤 KINTEX 와 호수공원 등을 둘러 보며 투자환경을 타진했다.

이번 방한은 시와 서울차이나타운개발(주)이 지난 12 일 칭다오 하이텐(海天)호텔에서 열린 일산 차이나타운 투자설명회 후속조치로 참가 기업들은 일산 차이나타운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칭다오에서 열린 일산 차이나타운

투자설명회에서 서울차이나타운개발(주) 자회사인 엠차이나타운은 중국측과 칭다오 스팡치(四方區)에

들어설 '밀레니엄 신라방(한국문화성)'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서울차이나타운개발(주) 관계자는

“일산 차이나타운은 칭다오 스팡치에 건설될 예정인 칭다오 코리아타운인 신라방과 함께 한중 쌍방향 교류의 창구역할을 담당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고양=이종철기자 jcleee@kgib.co.kr